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2010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김 정 아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지도교수 황 희 숙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김 정 아

김정아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0년 8월 25일



주 심 철 학 박 사 이 희 영 (인)

위 원 철 학 박 사 이 정 화 (인)

위 원 교육학박사 황 희 숙 (인)

목 차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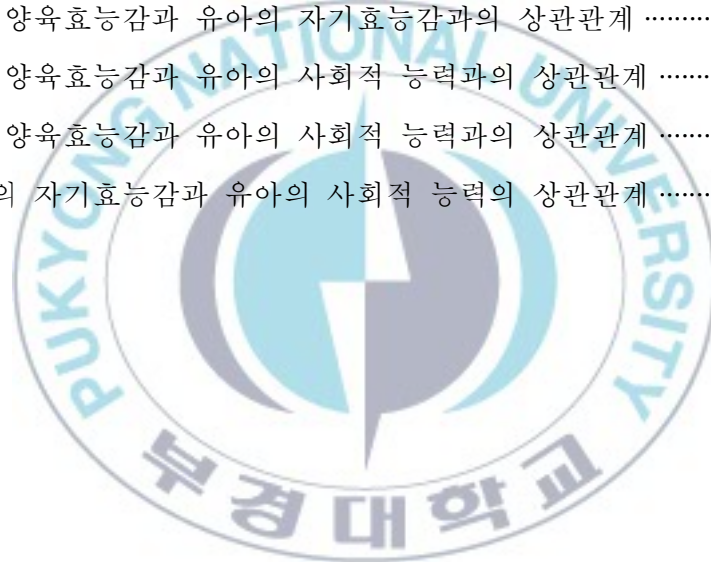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5
3. 용어의 정의	5
II. 이론적 배경	8
1. 양육효능감	8
2. 자기효능감	12
3. 사회적 능력	16
4.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능력에 대한 선행연구	22
III. 연구방법	27
1. 연구 대상	27
2. 연구 도구	28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31
IV. 연구결과 및 해석	33
1. 부와 모의 양육효능감의 차이	33
2.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34
3.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35
4.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36

V. 논의 및 결론	38
1. 논의	38
2. 결론 및 제언	43
참고문헌	46
부 록	54



표 목 차

<표- 1> 집단별 연구대상의 구성	27
<표- 2> 부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29
<표- 3> 모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29
<표- 4> 유아의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30
<표- 5>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31
<표- 6> 부모의 양육효능감의 부와 모에 따른 차이	33
<표- 7> 부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	34
<표- 8> 모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	35
<표- 9> 부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상관관계	36
<표-10> 모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상관관계	36
<표-11>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상관관계	37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Parenting Self-Efficacy and
Children's Self-Efficacy, Social Competence

Kim Jung A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figuring out what differences father and mother hold in parenting self-efficacy, a parental expectation and judge on their performing competence as the parents, and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parenting self-efficacy and children's self efficacy & social competence, and seeking how the parenting self-efficacy affects their offspring in childhood in self-efficacy and social competence.

Following are the questions this study investigated

1. Is there any differences in parent's parenting self-efficacy depending on father and mother?
2.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self-efficacy and children's self-efficacy?
3.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parenting self-efficacy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4.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elf-efficacy and their social competence?

A questionnaire was carried out from November 20, 2009 to December 27, 2009 for this study with 480 children aged 4~5 and their parents living in Busan metropolitan city. 360 copies out of 480 were collected and among them, those which is incomplete in response, omitted in responses, and from single parent family were excluded leaving 312 pieces of parental questionnaire and 312 pieces of children's questionnaire which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Parenting efficacy test, children's self-efficacy test, children's social competence were surveyed as the measurement t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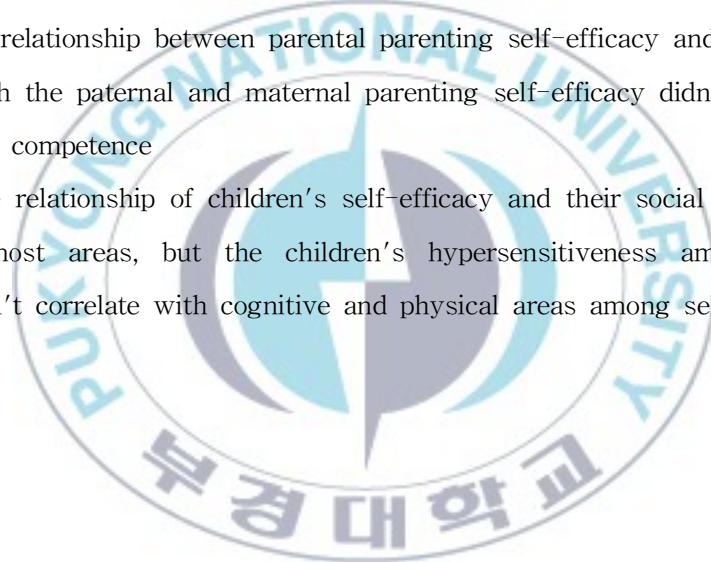
Following are the conclusion based on the analyzed and discussed results to the questions fixed for the study

First, the result of inquiring for any differences in parenting self-efficacy depending on father and mother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tatistics in communicative competence, learning guidance, discipline competences.

Second, in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parenting self-efficacy and children's self-efficacy, maternal parenting self-efficacy related closely to the children's self-efficacy more than that of paternal parenting self-efficacy, and maternal parenting self-efficacy correlated wholly with children's self-efficacy while parental parenting self-efficacy didn't much correlate with children's cognitive area.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arenting self-efficacy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both the paternal and maternal parenting self-efficacy didn't correlate with children's social competence

Fourth, in the relationship of children's self-efficacy and their social competence, they correlated in most areas, but the children's hypersensitiveness among their social competence didn't correlate with cognitive and physical areas among self-efficac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는 이 세상에서 최초로 접하게 되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인간의 기본적 능력과 기술을 배우는 등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하기 때문에 부모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유아는 성장해 가는 동안 부모가 제공하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자극을 통해 생활 규범과 가치관을 습득하며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한다(한미자, 2002).

과거의 부모역할을 살펴보면, 1970년대 이전에는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전가하였고 가정의 부양자로서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아버지가 요구되었으며 자녀양육 관련 연구 역시 어머니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통적 남성 역할이 재조명되기 시작하였고,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여성의 취업률 증가와 핵가족화 현상으로 가정 내 자녀양육에 있어 잊혀진 공헌자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 이후 아버지 역할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아버지의 양육행동(우정희, 2002; 이정순, 2003), 양육참여(김광웅, 이인수, 1998; 김미영, 2008; 성귀자, 1999; 우미경, 2006; 이완정, 현은장, 최혜란, 1997; 이정순, 2003; 최윤숙, 2007; 한미자, 2002; 허선자, 1992), 양육태도(김경숙, 2004; 남상문, 1997; 전은영, 2001; 최미향, 2002; 황혜자, 최윤화, 2003) 역할수행(김진희, 2005; 민현숙, 1997; 조선화, 김광웅, 1999)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아버지의 적극적인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증대를 고려할 때 심리적 변인으로 아버지의 부모효능감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부모자녀 관계와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Duncan과 Mcauley(1993)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라는 인지적 구인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부모역할 수행의 차원에서 볼 때 부모의 효능감은 부모로써 유능하게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부모의 지각을 말한다(Coleman & Karraker, 1997; Teti & Gelfand, 1991). 즉, 부모의 효능감은 부모가 그들의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를 수용하고 애정표현이나 필요한 도움을 많이 제공하며, 자율성에 대한 칭찬과 격려 등과 같은 긍정적 행동을 많이 하고, 또한 자녀에게 일상생활에서 규칙을 정해 지키도록 하며, 행동의 한계를 설정하는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인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높이고, 자녀에게 온정적이고 격려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윤은미, 2004). 또한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아동에게 수용적이고 비체벌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한다. 그리고 아동을 잘 이해하고 부모-아동간의 상호작용을 좀 더 원활하게 하게 이끄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반면, 양육효능감이 낮은 어머니는 통제적이고 강압적이며 체벌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아동을 학대하고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다고 한다(Coleman과 Karraker, 1997). 또한 사회적 능력(문태형, 2002), 자녀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안선의 외, 2004) 등과 양육 효능감이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양육효능감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을 조사 연구하는 것은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이해하고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김현미 2004; 남재희, 2004; 문태영, 2002; 박현정, 2005; 신숙재, 1997; 최형성, 2005; 김혜경, 2006), 아버지를 대상으로 부모효능감에 대해 탐색한 연구는 드물다.

한편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유아는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발달시키고 일상적인 생활스트레스에도 잘 견디어 유치원 및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고(차인수, 2001), 또한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며 또래간의 인기도 높아 바람직한 사회성 발달을 보이며,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게 되어 잘 대처하게 된다(가경신, 윤운성, 정정옥, 2004). 반면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유아는 자신감이 없고 위축되어 수동적이며,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걱정과 불안이 앞서 주어진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전은영, 2001; Bandura, 1977). 유아의 자기효능감은 일차적으로 가족 내에서 형성되어지며 가족 중에서도 유아와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어머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전인옥, 1996). 유아의 성, 연령, 기질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홍계옥, 2003).

따라서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유아의 인지·사회 정서적 발달 및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지고 있어 유아의 자기효능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한편 유아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을 획득한다. 즉, 자신을 돌보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상호작용을 하며 유아의 이와 같은 사회적 능력은 유아 주변을 둘러싼 환경을 인식하고 적응해 가는 방식을 결정한다. 부모의 사회적 배경과 양육 태도의 차이는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물론 유아들 간의 사회적 능력이나 정서 발달에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유경량, 2004). 예컨대 민주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부모가 유아의 사회적 활동성, 책임성, 안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거나, 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부모의 경우에는 유아의 과민성, 비협조성, 불안전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송인우, 2001).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변혜경, 1999; 우수경, 2005; 최정미 2002)을 살펴보면,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과 보호, 권위의 경험은 관찰되고 모방되어지면서 유아의 가지관으로 내면화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부모의 양육효능감, 유아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능력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능력(신근화, 2009)을 살펴보거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이외영, 2002), 어머니의 부모효능감과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자기 통제력의 관계(전혜경, 2008)만을 살펴보는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양육효능감을 측정하는 대상이 주로 어머니였고,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능력간의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핵가족 시대에 어머니의 사회활동이 많아지고 있고, 아버지의 역할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차경숙, 1997)과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관심도 많아짐으로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도 많아지고 유아기 아동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을 살펴보는 일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아기 자기효능감이나 사회적 능력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아교육 및 자녀양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서의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한 기대와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양육효능감이 부와 모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양육효능감이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능력에서 아동기 자녀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부와 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3.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는 어떠한가?
4.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능력의 관계는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적용되고 있는 주요 용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이란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부모역할 수행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 대해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바람직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신념에 대한 인지능력으로 정의하며, 국내·외의 양육효능감 측정에 사용된 도구들을 참고로 최형성(2001)이 개발한 양육효능감척도에서 산출된 점수를 의미한다.

나.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과 관계되는 것으로 개인의 어떠한 행동이나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며, 어떠한 활동을 선택하고 선택된 목표를 향해 노력을 기울이고 장애에 직면할 경우 그 활동을 지속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전인옥(1996)의 유아의 자기효능감 검사 척도에서 산출된 총점을 자기효능감으로 정의한다.

다. 사회적 능력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능력을 유아가 성숙하고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적응능력으로서 주변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일상적인 활동들을 개인적, 사회적으로 충분히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하

고, Pease, Clark 및 Crase(1979)의 “Iowa Social Competence Scale :
Preschool Form”를 양외점(1994)이 어머니용 설문지를 번역, 수정하여 교
사용으로 만든 사회적 능력 검사에서 얻어진 점수를 의미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양육효능감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양육효능감(parenting self-efficacy)은 적절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Johnston & Mash, 1989).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발달적 결과에 대해 부모 자신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로 볼 수 있다. 이 개념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과제 수행에 필요한 동기 및 인지적 원천이며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된다(이승은, 서현, 2007).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지난 몇 십년 동안 교육 연구 분야에서 관심이 증대되어 왔으며(윤운성, 1998), 이를 양육의 영역으로 확대 적용하여 1980년대 말과 1990년대에 보다 광범위하게 연구가 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양육효능감은 ‘양육 유능감(parental competence)’, ‘양육 확신감(parental confidence)’, ‘양육신념(parental beliefs)’등의 유사한 개념들과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다. 개념상의 다양함은 양육효능감을 정의하는데도 다소 차이를 보여 왔는데,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정의는 다음과 같은 속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구체적인 양육기술(먹이기, 달래기 등)에서 성공적인 경험 여부를 강조한 학자들의 정의를 들 수 있는데, Bandura(1991)는 양육효능감이 아

동의 양육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자신의 역할 수행에 대한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였으며, Teti와 Gelfand(1991)는 부모로서 유능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부모의 기대라고 정의하고,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어머니로서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Donovan, Leavitt와 Walsh(1990)는 중요한 사건을 통제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성공의 경험에 의해 양육효능감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들의 정의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양육의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구체적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어려운 상황(폐쓰기, 울기 등)에 부딪혔을 때, 이러한 양육효능감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하였다. 그 다음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믿는 부모의 신념 및 판단에 관한 측면을 강조한 학자들의 정의를 들 수 있다. Johnston과 Mash(1989)는 부모로서 능력이 있다고 느끼는 정도, 아동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 양육에 대한 익숙함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Dorsey, Klein, Forehand와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1999)은 양육효능감이란 아동의 바람직한 발달과 관련된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믿음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들은 연구를 통해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을 많이 보여주며, 동시에 아동의 사회적·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양육효능감은 부모와 아동의 심리적 안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설명하였다. Scheel과 Rieckman(1998)은 양육효능감이란 부모의 과업을 완수하고 아동의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지각이라고 정의하였다. Coleman과 Karraker(2003)는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발달과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각하는 부모의 평가라고 정의하

면서, 여기에는 양육과 관련된 행동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뿐 아니라 적절한 양육행동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양육효능감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부모로서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한 기대나 판단으로 부모역할에 대한 적응을 돕고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부모역할 수행능력에 대한 부모자신의 신념을 의미하는 정의라 할 수 있다.

양육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이 잘 할 수 있다고 느끼며 자신의 행동이 효과적이라고 느끼는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로서 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신체, 인지, 사회 및 정서 발달을 돕는 양육 행동이 나타나고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자원을 격려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신숙재, 1997). 어머니와 자녀의 문제해결 상황과 놀이 상황을 관찰하여 어머니의 지각된 효능감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연구한 Mondell과 Tyler(1981)는 어머니와 자녀의 문제해결 상황과 놀이 상황을 관찰하여 어머니의 지각된 효능감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자녀의 능력을 인정하여 문제해결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지각된 효능감은 상황에 따라 보다 적절하고, 융통성 있으며 일관된 양육행동의 특성과 연관된다고 하였다. 부모가 자신의 역할수행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지각하느냐에 따라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었으며 자신의 양육효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부모는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보였다(안지영, 2000; 우희정, 1993). 그러므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양육의 중요한 심리적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

을 나타내며, 양육효능감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낸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며(김미숙, 문혁준, 2005; 우희정, 1993; 최형성, 2005), 이러한 양육행동이 자녀의 효능감 발달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우희정, 1993).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서 유의한 관계가 설명되었다는 연구결과(원영숙, 2009),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사회적 유능성에 정적 상관이 있고(조인영, 2007),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자율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우미정, 2008)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는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중 어머니의 자율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신근화, 2009; 홍현숙, 2008; 이진희, 1998; 김덕희, 2005).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교육수준, 결혼 만족도, 취업여부, 아동의 기질, 주변사람의 사회적 지지, 가정의 월 소득, 자녀 양육경험, 자녀의 성별, 자녀의 연령 등이 있다. 특히 어머니가 고학력일수록 양육에서 높은 자신감을 보인다고 한다(문태영, 2001). 또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관련되는 변인으로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나 가정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배경(전인옥·이경옥, 1999)과 아버지의 학력(문혁준, 1991)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양육효능감은 양육과 관련된 요인들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경향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인지능력 등을 포함한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고(Coleman & Karraker, 1997; Dorsey et al., 1999), 김지신과 도현심(1997)은 어머니의 사회관계망을 통해 어머니의 역할 수행에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부모로서 자녀양육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유능하다고 느낄수록 유아가 자신의 인지적인 능력에

대한 효능감을 높게 가진다고 하였다(전혜경, 2008).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언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서, 최근 사회인지 이론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개념이다. 처음으로 자기효능감 이론을 제안한 Bandura는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의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 Bandura(1977)의 사회학습이론에서 인간은 어떤 활동이나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결과기대'와 '효능감 기대'와 같은 두 가지 판단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기대했던 결과를 수반하는 행동을 자신이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효능감 기대라 하고, 이 효능감 기대를 자기 자신이 지각하는 것을 소위 '자기효능감'이라 부르는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끈기 있게 대처하는가'라고 정의(현정환, 1998)할 수 있다. 또한 효능감 기대와 비슷한 개념으로 결과 기대는 어떤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한 판단으로 자기 효능감이 어떤 수행을 성취할 것이라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고, 이러한 행동이 산출할 것 같은 물질적, 심리적 영향에 대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강수진, 1995).

Schunk(1981)는 자기효능감은 모호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긴장을 주는 요소가 포함된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신이 얼마나 행동을 잘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판단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인간이 어떤 활동을 선택하고,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어려움에 직면하

여 그 행동을 얼마나 지속시킬 것인가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현재 진행 중인 행동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미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남성(1985)은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이 어떤 행동을 능히 해낼 수 있다고 기대할 때 행동변화가 일어나서 어떤 행동을 해 낼 수 있게 된다는 개인의 기대로 보고 특정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이므로 자기효능감을 성취 장면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가지는 기대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고, 허경철(1991)은 자기효능감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 능력 있는, 효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와 같은 '자신이 자신에 대해 느끼고 있는 유능성, 효능성, 자신감'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최미향(2002)은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과 관계되는 것으로 개인의 어떠한 행동이나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고, 어떠한 활동을 선택하고 선택된 목표를 향해 노력을 기울이고 장애에 직면할 경우 그 활동을 지속하게 되는 것이라고 자기효능감을 정의하였다.

자기효능감은 4가지 주요 정보, 즉 성취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Bandura(1977)는 이 네 가지 종류의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자기효능감이 형성되어진다고 하였고, 자기효능감의 원천으로 제시한 이 4가지 정보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취경험(performance accomplishments)으로 실제의 성공경험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효능감 판단에 기초한 정보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정보원이다. 이들 경험은 정보의 인지적 과정을 통하여 자기효능감 판단에 영향을 준다. 만일 성공했던 경험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자기효능감은 높아질 것이며, 실패했던 경험이 많다면 반대로 낮은 자기효능감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반복된 성공을 통해 일단 자기효능감이 형성되면,

일시적으로 실패한다 할지라고 부정적인 효과는 줄어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성공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실패가 개인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는 실패가 일어나는 전체적인 경험의 시기와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실패의 경험을 극복하고 성공의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갖는 가정환경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Festing, 1954, 재인용).

둘째, 대리경험(vicarious experience)으로 과제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나 이미지에 따라서 자기효능감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자신과 비슷한 다인의 성공을 보거나 상상함으로써 자신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다. 즉, 대리경험은 실연 모델이나 상징적 모델이 하는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학습하게 하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다인을 가장 좋은 비교대상으로 여기고, 숙련된 모델보다 숙련되지 못한 모델이 수행하는 것을 관찰하는 경우와 한 모델의 수행보다 여러 명의 모델이 확실하게 잘못된 전략을 사용하여 실패할 경우 관찰자가 적절한 전략을 갖고 있으면 자아효능감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esting, 1954, 재인용).

셋째,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으로 효능감 기대에 대한 정보는 다른 사람의 격려나 칭찬 등 언어적 설득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전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도 타인의 설득이나 격려를 통해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게 되기도 한다. 드러나게 격려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어떤 일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투여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성공의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적 설득의 힘은 확실한 행동적 수행이라는 기반이 없으므로 성공적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의 조성 없이 말로만 격려를 받아, 새로운 일에 도전했다가 실패하게 되는 사람은 그러한 설득자를 다시는 믿지 않으며 자기 자신의 능력

에 대해서도 더욱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넷째, 정서적 각성(emotional arousal)도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데 어떤 문제 상황을 예상하거나 직면했을 때 느끼는 정서 내용의 여하로 자신감 정도를 판단해 보는 것이다. 이 경우 별로 불안이나 긴장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일이 쉽거나 성공적 수행이 가능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문제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반응은 때로는 자기효능감 판단에 정확한 정보원이 되지를 못한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한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갖게 되는 예상 불안이 실제로 일을 수행하면서 느끼게 되는 불안보다 일반적으로 더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정서적 불안이나 안정 등이 효능감 정도를 알려주는 하나의 정보인 것만은 사실이다(허경철, 199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andura(1977)는 환경적 정보가 직접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매체 과정에 의하여 처리되고 변형됨으로써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는 정서적 각성과 자기효능감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는 성취 경험 정보는 자기효능감이라는 중간매개 역할을 하는 인지적 작용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다음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애정과 통제가 적절히 균형 잡힌 어머니나 민주적 양육유형이 온정이 낮고 통제가 강한 권위적 양육 유형에 비해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보고하였고(공인숙, 1989), 어머니의 행동 및 태도는 아동의 지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지적인 자극을 제공할 뿐 아니라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된다(우희정, 1993)고 보고하였다. 전해경(2008)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부모로서 자녀양육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유능하다고 느낄수록 유아가 자신의 인지적인 능력에 대한 효능감을 높게

가진다고 하였고, 신근화(2009)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또는 자율적 일수록 유아의 인지적, 신체적, 사회·정서적, 그리고 자기효능감 전체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을 가지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부모에 의해서 성공의 경험을 많이 가진 아동은 자기효능감도 강할 것이며, 주위 사람들의 평가나 설득에 의해서도 자기효능감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3. 사회적 능력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발달단계에 따라 초기의 애착, 부모의 양육태도, 그리고 이후의 사회적 적응 등과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가 속한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생활해 가는데 필수적 요소이며, 사회적 능력의 제 변인들이 학업 성취 가능성의 예언력을 높여줄 수 있으며, 유아의 사회적 발달을 설명하고 유아의 행위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켜줄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란 유아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광범위한 영역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고 어느 시대, 어떤 장소에서나 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기 보다는 그 사회에 깊이 자리 잡힌 근본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최경순·정현희, 1996).

사회적 능력이란 유아의 사회적 행동특성의 광범위한 영역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문화권이 가지는 다른 가치들을 반영함으로써 그 사회마다 그 정의가 다를 수 있고, 학자의 관점이나 연구 접근방법의 다양성으로 인해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김덕희, 2005)

Anderson과 Messick(1974)는 사회적 능력이 일반지능 ‘이상의 무엇’이라는 데에 공감하고,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초로서 사회적 능력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전반적인 사회적 능력을 포괄하는 이론적 체계는 없으며 따라서 사회적 능력을 하나의 진술로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단지 사회적 능력의 단면을 정의하는 운동기능, 언어기능, 호기심, 범주화기능, 기억능력, 창의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일반적 지식 등 29가지 요인을 소개하고 있다.

Gottman(1979), Raupp(1985), Youniss(1980)는 사회적 능력을 적절한 양의 개인적 목적이 관계에 참여하는 양자에 의해 상호적 충족을 시키고, 긍정적 영향을 내포하고 약간의 상호적인 기호를 반영하며, 불가피하게 몇 가지 갈등에 이르는 상호조절의 융통성 있는 패턴을 보여주는 관계들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양자관계의 능력이라고 규정하였다.

Asher(1983)는 유아의 사회적으로 유능한 행동에 대한 세 가지 차원을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는 상호작용의 장면에서 성공적으로 참여하고, 나중에 또래집단에서 높은 지위를 갖는 유아는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자신의 행동을 적응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관련성의 차원, 둘째는 타인과의 관계를 시작할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말하는 반응성의 차원, 셋째는 사회적 능력이 있는 유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계는 발전해 가고, 문제가 해결되어 간다는 것을 이해하는 과정 관점을 가진다는 과정관점의 차원이 그것이다.

사회적 능력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적응적 측면에서의 동물행동학적 접근, 인성 구조적 측면, 사회적 상호작용의 측면, 동기에서 보는 측면의 4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다(성귀자, 1999; 임경례, 2002).

첫째, 환경에 대한 적응 측면으로서 동물 행동학적 접근으로 보는 사회적 능력을 환경에 적합한 행동을 나타내는 적응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다. 각 환경마다 지니고 있는 상황들이 개별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그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형성해 나감과 동시에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발달시켜 나간다는 관점이다(O'Mally, 1977). White(1959)는 사회적 능력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물리적, 정서적 자원을 얻어 효율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Gunzberg(1973)는 개인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행위의 기준과 관습, 습관 등에 동조하려는 정도로 사회적 능력이 표현된다고 보며, 사회적 지식과 사회적 기술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3-6세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란 어른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른의 관심을 끄는 것, 어른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 어른에게 애정과 적대감을 표현하며 성취한 일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는 또래에게 경쟁심, 애정, 적대감을 표현하는 것과 또래를 이끌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는 것이라고 The Harvard Preschool Project(1978)의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다.

Ziger와 Trikett(1978)는 개인이 환경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간주하였으며, 사회적 능력의 내용으로는 적절한 형식적인 개념을 습득하는 능력, 학교생활을 잘 수행하는 능력, 성인이나 다른 유아와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둘째, 인성 구조적 측면으로서의 접근은 사회적 능력을 다양한 구성인자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다양한 인성구조 중에서 긍정적인 특성을 소유한 사람을 사회적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며, 부정적인 특성을 소유한 사람은 사회적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적 능력이란 사회생활을 위한 도구이며 우수한 인간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회적 반응성, 독립성, 성취지향성, 활력 등의 구성요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긍정적인 속성의 행동을 애정, 접근성, 외향성으로 보고, 부정적인 속성의 행동을 적대감, 회피성, 내향성으로 보았다(Schaefer, 1961).

Kohn과 Reseman(1972)은 사회적 능력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사회적 능력을 요인 분석한 결과 양극적 개념으로 구성된 두 개의 차원 즉, 관심-참여 대 무관심-비참여 차원과 협동-순응 대 분노-반항의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사회적 능력이 높은 유아는 관심과 호기심이 있고, 교사의 제안에 따르는 한도 내에서 주장적이며, 호기심과 단호함, 관심과 같은 긍정적인 속성이 많고, 사회적 능력이 낮은 유아는 위축되거나, 관심이 부족하고 비협조적이며 학급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방해를 하는 부정적인 속성이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셋째, 사회적 상호작용 측면에서는 사회적 능력을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대인관계의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으로 본다(O'Mally, 1977). 이와 같은 능력에는 다른 사람의 역할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행동목록을 소유하는 것, 상황에 적합한 기술을 나타내게 해 주는 것과 같은 개인 내적인 자원을 소유하는 것이 포함된다(Weinstein, 1969). Perry와 Bussey(1984)는 사회적 상호작용 측면 중 또래관계에 초점을 두었는데, 사회적 능력이 있는 유아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가지며, 아동에게 있어서는 우정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이 사회적 능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또한 사회적 능력을 관찰할 때는 상호작용의 빈도보다는 질을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Krasnor와 Rubin(1983)은 사회적 능력에서의 중요한 내용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대인관계에서 도움을 얻고 대화를 주도하는 행위와 같은 목표획득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보았다. Pease와 그의 동료들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ISCS(Iowa Social Competency Scales)를 개발하였는데 이들도 사회적 능력을 사회적 상호작용 이론의 관점에서 사회적 인지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회적 능력을 사회적 활동성, 안정

성, 협조성 등의 긍정적 행동영역을 나타내는 요인들과 과민성 비협조성 등의 부정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요인들로 구분하였다(Pease, Clark & Crase, 1979).

넷째, 사회적 능력을 동기에서 보는 관점으로 사회적 능력이란 인간이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고, Bronson(1974)는 환경을 탐구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정복하려는 일반적인 생물학적 목적의 견지에서 사회적 능력을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능력을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 보고 이 능력에는 파악, 탐구, 기는 것, 걷는 것, 관심 갖는 것, 지각, 언어, 사고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본능적인 동기를 가진 것들로 보았다. 사회적 능력과 동기는 관련되어 있으며 인간은 본질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주는 행동에 동기를 부여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능력의 네 가지 관점은 개념과 접근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관점이 있다. 특히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자신이 소속된 사회에서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면서 필요한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성하숙, 2007).

사회적 능력에 관한 선행연구들 중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변인으로 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우선성에 따른 사회적 능력의 차이가 있음을 밝힌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여아의 사회적 능력이 남아의 사회적 능력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노명희(1995)의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의 경우 여아의 사회적 능력이 남아보다 더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유아를 대상으로 한 도현심(1994)과 윤은미(2004)의 연구에서도 여아의 사회적 능력이 남아에 비하여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사회적 능력에 차이가 없음을 밝힌 결과들(김영지, 1994; 안재연, 1992; 최윤숙, 2007; 성하

숙, 2007)도 보고되었다. 한편 Kohn과 Roscman(1972)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발달에 중요한 부분은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관계에서 학습되며, 특히 생애 초기 3년 동안의 상호관계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유아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양육태도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그밖에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역시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들은 대체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의 사회적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정아, 1990; 문용주, 1987; 장영애, 1987; 윤은미, 2004; 김경숙, 2004; 우미경, 2006).

그리고 Ainsworth와 Bell(1974)은 사회적 능력을 타인에게서 협력을 얻어내는 개인의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사회인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 Pease(1979)는 사회적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는데 5가지 요인으로 사회적 능력을 구분하였다. 즉 사회적 활동성, 안정성, 협조성 등의 긍정적 행동을 나타내는 요인들과 과민성, 비협조성 등 부정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 능력의 개념 정의에 있어서 각 측면과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즉 주위의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4.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능력에 관한 선행연구

가.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부모는 유아의 최초의 교사이고 유아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들의 행동 규범을 형성하기 때문에 부모의 인식, 태도, 가치관등은 자녀의 인격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김혜경, 2006). 부모는 아동의 발달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지적인 자극을 제공할 뿐 아니라 환경을 조작하고 다른 환경의 중재자 역할을 하므로 아동의 효능감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우희정, 1993). 이 연구에서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모로서의 효능감과 바람직한 자녀양육 행동과는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나타내며, 이것은 자녀의 효능감 발달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 중에서도 유아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상호작용이 많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은 유아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우희정, 1993). 특히 유아의 자기효능감의 발달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바람직한 양육행동과 부모와 자녀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끌었다(Dorsey, Klein & Forehand, 1999). 반면 양육효능감이 낮은 부모는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나타낼 뿐 아니라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방해하는 것(Coleman &

Karraker, 1998)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우희정, 1993; 황혜자, 최윤희, 2003), 통제신념의 세대 간 전수의 모델링 가설(가경신, 윤운성, 정정옥 역, 2004)에 의하면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 의해 학습될 수 있다. 즉 어머니는 아동의 일차적 모델로 작용하므로 아동은 어머니의 많은 행동 및 태도를 내재화하여 모방학습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혹은 기대는 자녀에게도 내재화되어 학습되기 때문에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아동의 자기효능감 형성의 모델이 된다는 것이다. 윤병두(1995)는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변인과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관계를 연구한 결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자기효능감 형성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수용적·자율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높게 한다고 하였다. 박현정(2005)은 남자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어머니의 부모역할 효능감이 직접적, 간접적 영향력이 있고 여자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은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경(2006)은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중 인지적 영역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해경(2008)은 어머니가 부모로서 자녀양육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유능하다고 느낄수록 유아가 자신의 인지적 능력에 대한 효능감을 높게 가진다고 하였다.

나.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문대영(2002)은 양육효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어머니일수록 아동의 사회

적 능력이 높게 나타나며, 사회적 활동성, 과민성, 안정성, 자기중심성, 협조성의 영역에서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인과관계에서 밀접한 관련성을 발견한 연구결과(김희진, 1993)에서도 발견된다.

김현미와 도현심(2004)은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효율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며 이는 남아의 대인적응성 중 인기도 및 지도력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밖에 몇몇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 정서적 발달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사이에 관계가 있으며(Donovan & Leavitt, 1989; Swick & Hassell, 1990), Seo(2006a)는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에 기초하여 생성된 내적 강인함은 빈곤과 연관된 불평등에 대해 완충적 작용을 할 수 있으며, 부모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결과 아동의 발달 결과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하였다.

부모의 역할을 잘 한다는 것을 바람직한 자녀양육 행동을 하는 것으로 양육효능감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연관되는 변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의 연구결과들을 보면, 안재연(1992)은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취업 자체보다는 취업과 관련된 배경변인들이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영지(1994)는 어머니와의 애착관계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는 유의한 상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김영희(1996)는 유치원에서의 적응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변인은 어머니의 한계설정이라고 하였다. 즉 어머니가 자녀의 생활에 제한을 두고 제한 영역을 다소 엄격하게 제시하며 이를 실행할수록 유아는 유치원에서 적응을 잘 한다고 하였다. 성귀자(1999)는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유의한 상관

이 있음을 밝혔고 윤은미(2004)는 어머니가 유아에게 애정표현과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자율성에 대한 칭찬과 격려 등과 같은 긍정적인 행동을 보일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김혜경(2006)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효능감 중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과 훈육능력에서 유아의 사회적 관심과 참여간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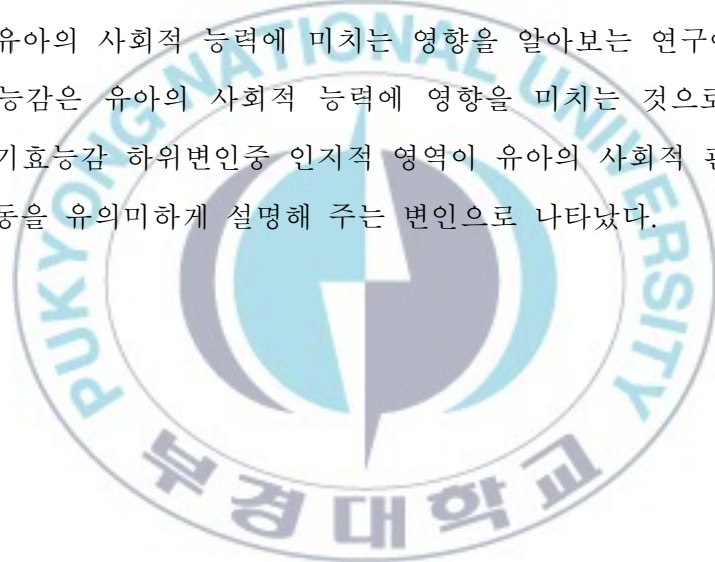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을 보면, 정선희(1984)는 유아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활동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자아효능감이 사회적 능력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며, 사회적 능력이 높은 아동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인실(1990)은 아동의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과제수행이나 학업성취 능력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조복희 외(1992)는 학동기에 있어 자존감은 매우 중요하며 학교생활과 친구관계의 성공여부는 자존감과 관련되어 있으며, 자존감이 높은 아동은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도력이 있으며, 독립적이고 창의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자존감이 낮은 아동은 자신을 쓸모없는 인간이라 여겨 술선해서 행동하지 못하며 새로운 과제에 불안감을 보인다고 하였다.

강수진(1995)은 아동의 자아효능감에 따른 사회적 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는데, 자아효능감이 높은 아동일수록 사회적 능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극적 사회참여와 인기·지도력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자아효능감이 높은 아동일수록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인기도나 지도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태영(2001)은 초등학교

을 대상으로 아동의 자아효능감 및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사회 지능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는 사회지능은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서의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내적 인지과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으로 아동의 높은 사회지능을 위해서는 일차적 주변 환경의 긍정적인 측면의 유지와 아동의 자기 능력에 대한 기대감 고양의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김혜경(2006)의 사회계층을 중심으로 부모의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자기 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기효능감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아의 자기효능감 하위변인중 인지적 영역이 유아의 사회적 관심과 참여, 사회적 협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해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유치원에 다니는 만 4, 5세 유아 480명과 이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실시 기간은 2009년 11월 20일부터 2009년 12월 27일까지였으며 총 480부의 설문지 중 360부를 회수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부실한 것과 기재가 누락된 것, 한부모 가정을 제외하고 부와 모의 설문지 각각 312부와 아동용 설문지 312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유아의 가족배경특성을 포함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1>에 제시하였다.

<표- 1> 집단별 연구대상의 구성

		빈도	퍼센트
유아성별	남자	165	52.9
	여자	147	47.1

	합계	312	100.0
유아나이	만 5세	274	87.8
	만 4세	38	12.1
	합계	312	100.0
출생순위	첫째	138	44.2
	둘째	149	47.8
	셋째	23	7.4
	넷째	2	0.6
	합계	312	100.0

2. 연구 도구

가. 부모의 양육효능감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본 검사는 Allen(1993), Dorsey와 그 동료들(1999), Dumka와 그의 동료들(1996), Elder와 그의 동료들(1995), Johnston & Mash(1989), Tei와 Gelfand(1991), Wells-Parker와 그의 동료들(1990), 신숙재(1997), 강희경(1994), 우희정(1993)의 척도를 국내·외의 양육효능감 측정에 사용된 도구들을 참고로 최형성(2001)이 개발한 양육효능감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반적인 양육능력, 건강한 아동양육능력, 의사소통능력, 학습지도 능력, 훈육능력의 5개 하위영역으로 총 3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방식은 다섯 가지 양육효능감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부의 양육효능감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는 <표-2>와 같고, 모의 양육효능감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는 <표-3>과 같다.

<표- 2> 부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전반적인 양육능력	1, 4, 5, 9, 10, 14, 18, 23, 28, 33, 36	11	.914
건강한 아동 양육능력	2, 6, 11, 15, 19, 24, 29	7	.815
의사소통능력	3, 7, 12, 16, 20, 22, 25, 30, 34	9	.899
학습지도능력	8, 21, 26, 31, 35, 37	6	.845
훈육능력	13, 17, 27, 32	4	.742

<표- 3> 모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전반적인 양육능력	1, 4, 5, 9, 10, 14, 18, 23, 28, 33, 36	11	.909
건강한 아동 양육능력	2, 6, 11, 15, 19, 24, 29	7	.826
의사소통능력	3, 7, 12, 16, 20, 22, 25, 30, 34	9	.900
학습지도능력	8, 21, 26, 31, 35, 37	6	.847
훈육능력	13, 17, 27, 32	4	.789

나. 유아의 자기효능감

유아의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유아의 행동영역을 인지적, 신체적, 사회·정서적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한 전인옥(1996)의 ‘유아의 자기효능감 검사’를 사용하였다. ‘유아의 자기효능감 검사’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유아의 자기효능감의 강도에 따라 5단계로 교사의 질문에 유아가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검사는 인지적 영역은 9문항, 신체적 영역은 7문항, 사회·정서적 영역 9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인지적 요인이 .772, 신체적 요인이 .684, 사회·정서적 요인이 .781로 나타났다.

<표- 4> 유아의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인지적 영역	1, 2, 4, 6, 10, 11, 13, 21, 25	9	.772
신체적 영역	5, 8, 14, 17, 18, 20, 22	7	.684
사회 정서적 영역	3, 7, 9, 12, 15, 16, 19, 23, 24	9	.781

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능력 검사는 교사의 관찰에 의하여 유아를 평가하는 교사용 4단계 평정척도로 Pease, Clark 및 Crase(1979)의 “Iowa Social Competence Scale : Preschool Form”으로 양외점(1994)이 어머니용

설문지를 번역, 수정하여 교사용으로 만든 아버지와 교사용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ISCS는 총 29문항으로 사회적 활동성, 안정성, 협조성, 비협조성, 과민성 요인이 포함되며 활동성, 안정성, 협조성의 긍정적 측면과 비협조성, 과민성의 부정적 측면으로 구성되었다.

ISCS 각 문항은 ‘거의 항상 그렇다’의 4점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까지 4단계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안정성’의 부정적인 문항(2, 12)의 점수는 역산하였다.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사회적 활동성이 .886, 안정성이 .739, 협조성이 .785, 비협조성이 .721, 과민성이 .801로 나타났다.

<표- 5>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사회적 활동성	3, 6, 7, 10, 13, 17, 18, 19, 25, 28	10	.886
안정성	(2), 4, (12), 24, 29	5	.739
협조성	1, 11, 14, 22, 27	5	.785
비협조성	8, 16, 20	3	.721
과민성	5, 9, 15, 21, 23, 26	6	.801

()문항은 역산한 것임.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본 조사는 2009년 11월 20일부터 12월 27일까지 각 가정에 배부한 후 응답하여 유치원으로 가져오게 하며, 유아의 자기효능감 검사는 교사가 유아와 1대 1 면담식으로 실시하였고 사회적 능력은 교사의 관찰에 의하여 유

아를 평가하는 교사용 4단계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60부를 회수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부실한 것과 기재가 누락된 것, 한부모 가정을 제외하고 부와 모의 설문지 각각 312부와 아동용 설문지 312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문제에 따른 자료 분석은 첫째, t-test를 통해 부모간에 양육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둘째, 상관분석을 통해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상관이 있는지 상관분석을 하였다.

셋째, 상관분석을 통해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상관이 있는지 상관분석을 하였다.

넷째,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상관이 있는지 상관분석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부와 모의 양육효능감의 차이

양육효능감이 부모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의사소통, 학습지도능력과 훈육능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6> 부모의 양육효능감의 부와 모에 따른 차이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p
전반적인 양육능력	부	312	3.696	.556	-1.744	.082
	모	312	3.771	.516		
건강한 아동 양육능력	부	312	4.077	.508	1.640	.102
	모	312	4.011	.489		
의사소통능력	부	312	3.850	.541	-2.996	.003
	모	312	3.974	.488		
학습지도능력	부	312	3.464	.648	-8.288	.000
	모	312	3.859	.537		
훈육능력	부	312	3.856	.538	-5.665	.000
	모	312	4.092	.504		

먼저 의사소통능력을 살펴보면, 부의 의사소통능력(M=3.850, SD=0.541)이 모의 의사소통 능력(M=3.974, SD=0.488)보다 낮게 나타났다.(t=-2.996, p<0.05)

다음으로 학습지도능력을 살펴보면, 부의 학습지도능력(M=3.464, SD=0.648)이 모의 학습지도 능력(M=3.859, SD=0.537)보다 낮게 나타났다.(t=-8.288, p<0.05)

마지막으로 훈육능력을 살펴보면, 부의 훈육능력(M=3.856, SD=0.538)이 모의 훈육 능력(M=4.092, SD=0.504)보다 낮게 나타났다.(t=-5.665, p<0.05)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전반적 양육능력과 건강한 아동 양육능력에는 부와 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의사소통능력, 학습지도능력, 훈육능력에서는 부에 비해 모가 더 양육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기효능감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상관관계

	유아의 인지적 자기효능감	유아의 신체적 자기효능감	유아의 사회·정서적 자기효능감
부의 전반적 양육능력	.133(*)	.164(**)	.237(**)
부의 건강한 아동 양육능력	.110	.158(**)	.181(**)
부의 의사소통능력	.104	.094	.154(**)
부의 학습지도능력	.169(**)	.216(**)	.298(**)
부의 훈육능력	.085	.142(*)	.201(**)

*p<.05 **p<.01

<표- 8> 모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

	유아의 인지적 자기효능감	유아의 신체적 자기효능감	유아의 사회·정서적 자기효능감
모의 전반적인 양육능력	.177(**)	.157(**)	.191(**)
모의 건강한 아동 양육능력	.179(**)	.184(**)	.192(**)
모의 의사소통능력	.134(*)	.135(*)	.106
모의 학습지도능력	.185(**)	.179(**)	.124(*)
모의 훈육능력	.148(**)	.170(**)	.147(**)

*p<.05 **p<.01

위의 표를 보면 부의 양육효능감에 비해 모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더 많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자기효능감 전체적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부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인지적 영역에는 상관관계가 많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 부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상관관계

	유아의 사회적 활동성	유아의 안정성	유아의 협조성	유아의 비협조성	유아의 과민성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111	.188(**)	.136(*)	-.113(*)	-.157(**)
건강한 아동 양육효능감	.160(**)	.217(**)	.124(*)	-.081	-.095
의사소통효능감	.077	.186(**)	.141(*)	-.117(*)	-.183(**)
학습지도효능감	.146(**)	.210(**)	.178(**)	-.147(**)	-.186(**)
훈육효능감	.137(*)	.243(**)	.138(*)	-.111(*)	-.140(*)

*p<.05 **p<.01

<표-10> 모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상관관계

	유아의 사회적 활동성	유아의 안정성	유아의 협조성	유아의 비협조성	유아의 과민성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176(**)	.206(**)	.121(*)	-.130(*)	-.154(**)
건강한 아동 양육효능감	.167(**)	.220(**)	.133(*)	-.170(**)	-.117(*)
의사소통효능감	.150(**)	.219(**)	.096	-.077	-.113(*)
학습지도효능감	.173(**)	.192(**)	.140(*)	-.115(*)	-.105
훈육효능감	.224(**)	.240(**)	.176(**)	-.129(*)	-.124(*)

*p<.05 **p<.01

위의 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부의 양육효능감과 모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11>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상관관계

	유아의 사회적 활동성	유아의 안정성	유아의 협조성	유아의 비협조성	유아의 과민성
유아의 인지적 영역	.490(**)	.333(**)	.409(**)	-.205(**)	-.081
유아의 신체적 영역	.385(**)	.323(**)	.206(**)	-.060	-.061
유아의 사회·정서적영역	.390(**)	.317(**)	.390(**)	-.236(**)	-.188(**)

*p<.05 **p<.01

위의 표를 보면 대부분의 영역에서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아의 사회적 능력 중 유아의 과민성이 유아의 자기효능감 중 유아의 인지적 영역과 신체적 영역에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활동성, 유아의 안정성, 유아의 협조성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활동성, 유아의 안정성, 유아의 협조성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유아의 비협조성과 유아의 과민성은 부적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유아의 비협조성, 과민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서의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한 기대와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양육효능감이 부와 모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양육효능감이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능력에서 아동기 자녀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아교육 및 자녀양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문제별로 나타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부모의 양육효능감의 부와 모에 따른 차이

양육효능감이 부와 모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의사소통, 학습지도능력과 훈육능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전반적 양육능력과 건강한 아동 양육능력에서는 부와 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의사소통능력, 학습지도능력, 훈육능력에서는 부에 비해 모가 더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효능감의 부와 모에 따른 차이를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

구가 거의 없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 부모들에게서 양육효능감이 부와 모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한 문종길(2006)의 연구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인 양육 능력과 건강한 아동 양육능력에서 부와 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은 일치하지만 본 연구에서 훈육능력이 부에 비해 모의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종길의 연구에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소통 능력에서 모가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일치하였지만 학습지도 능력에서 부가 양육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온 문종길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는 몇 편이 있으나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더 나아가 부와 모의 양육효능감을 비교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이 연구 결과를 그대로 일반화하여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더 많은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나.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의 양육효능감에 비해 모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자기효능감 전체적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부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인지적 영역에는 상관관계가 많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전은영(2004)의 연구에서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은 집단 어머니의 유아가 낮은 어머니의 유아보다 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일치하고 있고,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으며(서민정, 2002; 신숙재, 1997; 양정화, 2002; 최형성, 2002), 양육스트레스와 정서지능이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다(양정화, 2001)는 관련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양육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있으리라 추정한 것(문종길, 2006)과 같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양미숙, 2005)와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최미향, 2002),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전체와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김미영, 2008)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어머니의 부모효능감과 유아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전혜경, 2008)에서 어머니가 부모로서 자녀양육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유능하다고 느낄수록 유아가 자신의 인지적인 능력에 대한 효능감이 높음을 알 수 있는 것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전인옥(1997)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양육행동에 고려되었을 때 유아의 자기효능감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도 같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가 어떠한지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부의 양육효능감과 모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

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영지(1994)의 어머니와 아동과의 애착관계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연구와 김영희(1996)의 어머니가 자녀의 생활에 제한을 두고 제한영역을 다소 엄격하게 제시하며 이를 실행할수록 유아의 유치원에서 적응을 잘 한다는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윤은미(2004)는 어머니가 유아에게 애정표현과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자율성에 대한 칭찬과 격려 같은 긍정적인 행동을 보일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진숙, 한지현(2004)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또한 민주적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경(2006)은 유아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주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있어서 모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양육에 대한 다른 연구들 가운데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정적상관이 있다는 다수의 연구결과들(김미경, 2008; 우미경, 2006; 최윤숙, 2007)을 지지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부모의 양육 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고 대부분 어머니에 대한 연구로 아버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것을 생각한다면 더욱 더 다양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라.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가 어떠한지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영역에서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아의 사회적 능력 중 유아의 과민성이 유아의 자기효능감 중 유아의 인지적 영역과 신체적 영역에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활동성, 유아의 안정성, 유아의 협조성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활동성, 유아의 안정성, 유아의 협조성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유아의 비협조성과 유아의 과민성은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유아의 비협조성, 과민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아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정선희(1984)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장인실(1990)은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과제수행이나 학업능력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강수진(1995)은 아동의 자아효능감에 따른 사회적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서 아동의 자아효능감에 따른 사회적 능력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자아효능감이 높은 아동일수록 사회적 능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극적 사회참여와 인기, 지도력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자아효능감이 높은 아동일수록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인기도와 지도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혜경(2006)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기효능감 하위변인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하위변인간의 관계에서 모두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유아의 자기효능감 하위변인 중 인지적 영역이 유아의 사회적 관심과 참여, 사회적 협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해 주는 변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김미영(2008)의 연구에서도 유아의 자기효능감은 유

아의 사회적 능력과 전반적으로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에 따라 지금까지 분석되고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양육효능감이 부와 모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의사소통, 학습지도능력과 훈육능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전반적 양육능력과 건강한 아동 양육능력에서는 부와 모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고 하였지만 의사소통능력, 학습지도능력, 훈육능력에서는 부에 비해 모가 더 양육효능감이 높다고 하였다.

둘째,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부의 양육효능감에 비해 모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고, 모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자기효능감 전체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부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인지적 영역에는 상관관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에서 부의 양육효능감과 모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넷째,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에서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서로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유아의 사회적 능력 중 유아의 과민성이 유아의 자기효능감 중 유아의 인지적 영역과 신체적 영역에서 상관관계가 없었다. 여기서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활동성, 유아의 안정성, 유아의 협조성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높

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활동성, 유아의 안정성, 유아의협조성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유아의 비협조성과 유아의 과민성은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유아의 비협조성, 과민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서의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한 기대와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각 변인들 간의 상호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고, 부와 모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양육효능감이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능력에서 아동기 자녀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및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특정지역의 유치원에 다니는 만 4, 5세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유아와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많은 표본 집단을 연구하여 폭넓은 연구의 결과를 비교·종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설문지를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설문제 함께 사용하였는데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을 보다 잘 측정하기 위해 보다 객관화 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좀 더 많은 후속 연구들을 통해 표준화된 척도의 개발과 우리나라의 정서나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능력을 예측하는 변

인으로 부모의 양육효능감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유아 각 개인의 특성과 그들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발달하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효능감뿐만 아니라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등의 다양한 양육관련 변인들을 규명하고 유아의 자기효능감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들과의 다양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동의 전반적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가경신 · 윤운성 · 정정옥 역(2004).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자기효능감. 서울: 학지사.
- 강수진(1995). 아동의 자아효능감과 사회적 능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숙(2004).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성(1985). 인지적 행동수정. 서울: 교육과학사.
- 김덕희(2005). 외동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200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영(2008).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애 · 한유진(2009). 아버지의 양육수행,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지식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7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8(1), 55-64.
- 김영지(1994).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애착과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1996). 기질 및 양육태도와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19-32.
- 김정아(1990).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제 변인에 관한 연구-어머니와 교사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아(2008).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 및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미(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경(2006).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사회계층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상문(1997).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재희(200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태도 및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명희(1995).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도현심(1994). 유치원 아동 및 6학년 아동의 사회적 능력: 부모의 관심, 보호성, 아동의 성 및 출생범주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문종길(2006).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태형(2002). 어머니의 사고양식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49-62.
- 문태형(2001). 아동의 사회지능, 자아효능감 및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아동교육, 10(2), 37-48.
- 문혁준(2005). 취학 전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6(5), 139-149.
- 박현정(2005).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양육행동 및 아동의 성취동기가 아동

- 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4(4), 547-559.
- 성귀자(1999).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인우(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어머니와 교사의 평가차이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근화(2009).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선희·김선영(2004). 가족의 건강성과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2(12), 219-230.
- 안재연(1992).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자녀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90(9), 307-324.
- 양정화(2002). 남편의 협력과 어머니 효능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미경(2006).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미정(2008). 맞벌이 부모의 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동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수경(2002). 유아의 정서능력과 관련변인간의 구조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우희정(1993).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 효능감간의 인과모형 탐색.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영숙(2009). 어머니의 낙관성과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

- 계.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경량(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정서표현과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병두(1995).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은미(2004).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유능성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옥·전인옥(1999).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과모형 탐색-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교육신념과 양육에 대한 자기효능감, 양육행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19(1), 169-187.
- 이경하(2009).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은·서현(1997).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감성지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8(4), 127-144.
- 이진숙·한지현(2004). 어머니의 부모효능감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6), 63-73.
- 이진희(1998).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사회 적응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경례(2002).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석영·이지현(2008). 아버지의 부모효능감과 양육참여도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기능력에 대한 지각. 열린유아교육연구, 13(2), 73-89.
- 장영애(1987). 가정환경 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8, 17-44.
- 장인실(1990). 과제특성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은영(2004).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양육효능감에 따른 유아의 자아개념의 차이.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은영(2001).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정상경험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인옥(1997). 어머니의 교육신념과 자기효능감,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24, 657-684.

전인옥(1996). 교사의 교육신념과 자아효능감이 유아의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지, 22, 493-528.

전혜경(2008). 어머니의 부모효능감과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자기통제력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선희(1984). 긍정적 자아개념활동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복희 외 공저(1992). 인간발달. 서울: 교문사.

조인영(2007).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차경숙(1997).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언어통제유형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교육논총, 8, 191-200.

차인수(2001). 자기효능감과 사회성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분석.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미향(2002).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태도 일치정도에 따른 유아의 자아효능감과 관계. 대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경순·정현희(1996). 유아의 내외통제성과 사회적 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5(3), 231-240.

최경순·정현희(1995).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성역할, 정서반응, 친사

- 회적 행동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 16(1), 33-47.
- 최윤숙(2007). 아버지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형성(200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4), 111-122.
- 최형성(2002).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미자(2002).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경철(1991). Bandura의 자아효능감 발달 이론과 자주성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한국교육, 18, 67-84.
- 홍계옥(2003).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 양육행동과 모자 애착행동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계옥(2003). 유아의 성·연령·기질, 어머니 기질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3(4), 2-22.
- 홍현숙(2008).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혜자·최윤희(2003).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집, 22(1), 285-304.
- 황희숙·이희영·이경화·신경숙·윤경미·강승희·윤소정·황순영(2008). 아동발달과 교육. 학지사
- Anderson, S. & Messik, S. (1974). Social competency in young s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0.
- Bandura, A.(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 Y.: Freeman & Company.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IVJ: Prentice-Hall.
- Coleman, P. K., & Karraker, K. H.(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Donovan, W. L., Leavitt, L. A., & Walsh, R. O. (1990). Maternal self-efficacy: Illusory control and its effect on susceptibility to learned helplessness. *Child Development*, 61, 1638-1647.
- Dorsey, S., Klein, K., Forehand, R.,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295-305.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ar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 241-273.
- Gunzberg, H. C. (1973), Social Competence and mental handicap, Baltimore Williams.
- Jones, T. L., & Prinz, R. J.(2005). Potential roles of parental self-efficacy in parent and child adjustment: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5, 341-363.
- Kohn, M., & Roseman ,B. L. (1972). A Social competence scale and symptom checklist for the preschool *Child Developmental Psychology*, 6, 430-440.
- Krasner, L. R. & Rubin, K. H. (1983). "Preschool social problem solving: Attempts and outcome in naturalistic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vol.54, pp 1545-58.

- Mondell, S., & Tyler, F. B.(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s of problem-solving/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73-78.
- Schunk, D. H. (1981). Modeling and attributional feedback on children's achievement: a self-efficacy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73, 93-105.
- Seo, S. (2006a). A study of Korean Working mothers with infants: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social policy.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76(5). 479-492.
- Teti, O. M, & Gelfand, D. M.(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o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d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부 록

아버지 · 어머니 양육효능감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공부하고 있으며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 연구에 협조하여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연구를 위해 어머니·아버님의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입니다. 부모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설문지는 어머니·아버님께서 자녀를 키우시면서 갖고 있는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생각들을 묻는 내용입니다.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어머니·아버님의 응답은 자녀교육에 올바른 지표를 제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아버님께서 작성하여 주신 본 질문지의 내용은 학문적 연구에 관련된 통계자료로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설문지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어머니·아버님께서 생각하신 첫 번째 답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설문 내용을 잘 읽으신 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성하신 설문지는 자녀를 통해 다시 유치원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신 아버지·어머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 11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지도교수 : 황희숙

연구자 : 김정아

※ 다음은 유아와 부모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잘 읽으신 후, 각 란에 따른 내용을 기재해 주시거나,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곳에만 설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1. 유아의 이름 : _____

2. 유아의 성별 : ① 남 _____ ② 여 _____

3. 유아의 나이는 : 만 _____ 세

4. 유아의 출생순위 : _____ 남 _____ 여 중 _____ 째

5. 부모님의 연령 : 아버지의 연령 만 _____ 세

어머니의 연령 만 _____ 세

6. 아버지의 교육정도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 ② 고등학교 졸업 ()
③ 2년(3년) 전문대 졸업 () ④ 4년제 대학교 졸업 ()
⑤ 대학원 이상 ()

6. 어머니의 교육정도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 ② 고등학교 졸업 ()
③ 2년(3년) 전문대 졸업 () ④ 4년제 대학교 졸업 ()
⑤ 대학원 이상 ()

직(도매상 및 소매상의 경영주, 판매원 등) ()

직(공무원, 회사원, 은행원, 사무관련 종사자 등) ()

직(교수, 교사, 판사, 의사, 연구원, 군인, 예술인 등) ()

* 기타에 해당되실 경우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의 직업 ()

, 주부 ()

직(생산직 근로자, 기능공, 운전기사 등) ()

직(음식점·숙박업, 조리사, 건물관리인, 소방 등) ()

- * 기타에 해당되실 경우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기타에 해당되실 경우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 기타에 해당되실 경우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기타에 해당되실 경우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 기타에 해당되실 경우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아버님께서 평소에 느끼시고 행동하는 것과 가장 가까운 곳에
 V 표시 해 주십시오.

나는....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로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2	아이를 튼튼하게 키울 수 있다.					
3	다른 부모에게 자녀양육에 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4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5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6	아이의 학습을 지도할 수 있다.					
7	아이가 집밖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다.					
8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9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10	아이가 유치원에서 말썽부리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다.					
11	다른 부모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12	아이의 건강에 신경을 쓴다.					
13	아이를 잘 지도할 수 있다.					
14	아이에게 운동경기의 규칙을 가르쳐 줄 수 있다.					
15	아이에게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					
16	부모역할에 잘 적응하고 있다.					
17	아이가 짜증을 내는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18	아이가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도록 지도한다.					
19	아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모범을 보이고 있다.					

나는....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	내가 이야기 하는 동안 아이가 내 말에 귀 기울이게 할 수 있다.					
21	아이에게 가능한 한 최상의 양육을 제공하여 왔다.					
22	아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다.					
23	내 아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24	아이에게 유익한 책들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25	아이가 건강한 생각을 갖도록 지도한다.					
26	아이의 방과 후 일과를 관리할 수 있다.					
27	아이가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지도할 수 있다.					
28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다.					
29	아이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다.					
30	아이가 위험지역이나 외진 곳에 가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다.					
31	아이의 성적이 높아지도록 집에서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32	아이가 운동에 관심을 갖도록 지도한다.					
33	아이가 유치원에서 배우는 내용에 관심을 갖고 지도할 수 있다.					
34	아이를 일관성 있게 훈육할 수 있다.					
35	아이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 줄 수 있다.					
36	아이가 나쁜 친구들과 사귀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다.					
37	아이가 방과 후 좋은 활동(음악, 운동,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어머님께서 평소에 느끼시고 행동하는 것과 가장 가까운 곳에
 V 표시 해 주십시오.

나는....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로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2	아이를 튼튼하게 키울 수 있다.					
3	다른 부모에게 자녀양육에 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4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5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6	아이의 학습을 지도할 수 있다.					
7	아이가 집밖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다.					
8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9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10	아이가 유치원에서 말썽부리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다.					
11	다른 부모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12	아이의 건강에 신경을 쓴다.					
13	아이를 잘 지도할 수 있다.					
14	아이에게 운동경기의 규칙을 가르쳐 줄 수 있다.					
15	아이에게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					
16	부모역할에 잘 적응하고 있다.					
17	아이가 짜증을 내는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18	아이가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도록 지도한다.					
19	아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모범을 보이고 있다.					

나는....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	내가 이야기 하는 동안 아이가 내 말에 귀 기울이게 할 수 있다.					
21	아이에게 가능한 한 최상의 양육을 제공하여 왔다.					
22	아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다.					
23	내 아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24	아이에게 유익한 책들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25	아이가 건강한 생각을 갖도록 지도한다.					
26	아이의 방과 후 일과를 관리할 수 있다.					
27	아이가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지도할 수 있다.					
28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다.					
29	아이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다.					
30	아이가 위험지역이나 외진 곳에 가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다.					
31	아이의 성적이 높아지도록 집에서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32	아이가 운동에 관심을 갖도록 지도한다.					
33	아이가 유치원에서 배우는 내용에 관심을 갖고 지도할 수 있다.					
34	아이를 일관성 있게 훈육할 수 있다.					
35	아이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 줄 수 있다.					
36	아이가 나쁜 친구들과 사귀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다.					
37	아이가 방과 후 좋은 활동(음악, 운동,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능력에 관한 설문지

교사용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공부하고 있으며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 연구에
협조하여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연구를 위해 선생님의 도움을 얻고
자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각 문항은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질문을 잘 일거보신 후 선생님께서
담임하고 있는 유아가 원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관찰된 사항을 사실 그
대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본 질문지에 응답하신 사항은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선생
님께서 작성하여 주신 본 질문지의 내용은 학문적 연구에 관련된 통계
자료로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본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 11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지도교수 : 황희숙

연구자 : 김정아

※ 다음은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유아에게 아래 문항을 질문하신 후, 유아들이 대답한 대로 그 정도를 오른쪽 번호에 ○표 해주세요.

유아명 : _____ 연령 : 만 _____ 세 (남 / 여)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선생님 질문에 잘 대답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2	나는 수업시간에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열심히 들을 수 있다.					
3	나는 나이 어린 동생에게 양보하면서 잘 데리고 놀 수 있다.					
4	나는 싸우고 있는 친구들을 사이좋게 만드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5	나는 건강해지려고 스스로 노력할 수 있다.					
6	나는 선생님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려 어떤 것을 더 빨리 배울 수 있다.					
7	나는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8	나는 새로운 운동을 잘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9	나는 친구에게 생일초대를 받을 만큼 인기가 좋다.					
10	나는 세운 놀이계획을 잘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다.					
11	나는 새로운 것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다.					
12	나는 누구에게나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					
13	나는 오래전에 읽은 이야기를 잘 기억할 수 있다.					
14	나는 운동을 잘 할 수 있다.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나는 어떤 일을 오랫동안 잘 잡고 계속 할 수 있다.					
16	나는 유치원에 새로 들어온 친구에게 말을 먼저 걸어서 친구와 잘 사귄 수 있다.					
17	나는 무거운 것을 들고 멀리 갈 수 있 을 만큼 힘이 세다.					
18	나는 다리가 튼튼해서 달리기를 잘 할 수 있다.					
19	나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착 한 마음이 있다.					
20	나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울동을 잘 따라 할 수 있다.					
21	나는 어려워 보이는 일도 끝까지 열심 히 노력할 수 있다.					
22	나는 팔 힘이 세서 철봉에 매달리기를 오래할 수 있다.					
23	나는 유치원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도 울지 않고 잘 참을 수 있다.					
24	나는 기분 나쁜 일에도 잘 참을 수 있 을 만큼 마음이 넓다.					
25	나는 미술시간에 작품 만들기를 잘 할 수 있다.					

※ 다음은 유아의 사회적능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 각 문항을 읽어보시고 유아의 실제행동과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를 해 주세요.

유아명 : _____ 연령 : 만 _____ 세 (남 / 여)

이 아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거의 항상 그렇다
1	내가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바꾼다.				
2	집에서 낯선 곳에 가면 불안해하고 나에게 매달린다.				
3	친구들과 놀이를 할 때, 자기가 먼저 어떤 놀이를 하자고 제안을 한다.				
4	처음 보는 아이들과도 잘 어울려 논다.				
5	다른 아이들이 놀리면 어쩔 줄 몰라 한다.				
6	친구들과 놀 때 다른 아이에게 지시를 한다.				
7	친구들과 놀 때, 친구들에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8	부모가 구슬리거나 달래야만 친구들에게 장난감을 나누어 가지고 논다.				
9	다른 아이들이 놀리면 화를 낸다.				
10	다른 아이들에게 게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11	내가 말을 하면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				
12	낯선 장소에 가면 불안해하고 위축된다.				
13	집 주소를 물었을 때 분명하게 대답한다.				
14	놀이와 작업을 즐거워하면서 열심히 참여한다.				
15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쉽게 화를 낸다.				

이 아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거의 항상 그렇다
16	잡아당기거나 소리치거나 밀거나 하는 행동으로 부모의 주의를 끌려고 한다.				
17	여럿이 하는 행동을 자기가 먼저 생각해 낸다.				
18	실제로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지시한 것도 이해한다.				
19	친구들에게 자기 집에 가서 놀자고 잘 청한다.				
20	어느 한 가지 활동(놀이)을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				
21	잘못된 행동에 그것을 지적해 주면 어쩔 줄 몰라 한다.				
22	다른 아이가 제안하는 놀이도 잘 따라 논다.				
23	잘못된 행동에 대해 그것을 지적해 주면 화를 낸다.				
24	처음 만난 아이에게도 말을 잘 건다.				
25	놀이를 할 때 스스로 새로운 놀이를 고안해 낸다.				
26	놀이를 하다가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낸다.				
27	주위의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아서 그에 맞게 행동한다.				
28	자기가 보고들은 것에 대해 나에게 얘기를 한다.				
29	모르는 어른이 말을 붙이면 회피하지 않고 반응한다.				